

美國學의 過去, 現在와 未來

金 炯 逸

(서울대 초빙교수)

맥도웰(Tremaine McDowell)은 1948년 미국내 대학의 美國學研究實態 調查에서 美國人의 生活에 있어서의 複合性을 찾는 것을 이 조사의 第一原理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맥도웰 자신이 “학자로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統一性은 인간경험의 기본적인 多樣性 속에 있으며 바로 이 다양성을 그러한 복합성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著書 *American Studies*를 읽어보면 그런 다양성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 책의 終章에서 그는 美國學의 研究現況과 ‘근본적인 統一性’ 사이의 조화를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本稿에서 우리는 맥도웰의 原理와 試圖를 援用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미국학의 研究業績과 展望을 분석하기에 앞서 그 歷史와 理論의 根據를 일별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맥도웰등 여러 학자들이 수차 지적해왔듯이 독립된 학문분야로서의 미국학은 既存의 여러 분야에서 계속해서 叛亂을 일으켰다. 英語분야에서만 보더라도 세 갈래의 불만이 노출되고 있다. 그것은 첫째 美國文學은 대개 英語로 쓰여있기 때문에 미국문학은 英國文學의 下級分野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反對, 둘째 진정한 美國文學研究가 1800년 이전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 셋째 社會學的·心理學的·哲學的·美學的 接近方法은 도외시하고 言語學만이 문학연구의 關鍵이라는 견해에 대한 반대이다. 1948년 The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크레인(William G. Crane)은 美國文學講座가 대학의 교과과정에 포함된 것이 1890년 혹은 그 이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1918년에나 이루어진 일이고 또 이것이 일반적으로 용인되기까지는 적어도 십년이 더 흐른 다음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에서 The American Literature Group이 창립된 것도 제일차 세계대전 후의 일이었고 Amer-

ican Literature도 1929년에야 비로소 독립된 學術誌로서 간행되었다.

이렇게 美國文學研究가 착실하게 진전된 데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으나 당시의 학술지들을 검토해보면 그것이 研究方法에 있어서 強調點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言語學的・純粹文學的 接近方法으로부터 文學史的・知性史的 接近方法에로의 변화이다. 패링톤(Vernon L. Parrington)의 *Main Currents in American Thoughts*는 1927년에 발간되었는데 이것은 *Cambridge History of American Literature*의 초판보다 십년 더 지난 후의 일이었다. 배비트(Babbitt), 러브조이(Lovejoy), 맨리(Manly)와 로우즈(Lowes) 같은 급진파는 철학 및 문학의 연구방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바, 그것은 美國作家들뿐만 아니라 英國作家들의 思想이나 背景을 재검토해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더욱 중요한 것은 美國文學研究者들이 터너(Turner), 비어드(Beard), 맥매스터(McMaster), 쉴레진저(Schlesinger) 등의 史家들에게서 異端의인 흥미를 느끼고 力動的인 歷史發展理論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文學解釋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하나의 文學作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저 언어학적 전통에 근거하여 다른 작품에 나타난 자료를 참조하던 文學史理論이, 이제는 作品이란 작가의 예술적 표현이 완성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環境이나 작가 자신의 경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理論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새로운 접근방법에 의하여 북미대륙의 문화창달에 참여했던 예술가들의 작품과 영국에 남아있었던 작가들의 작품은 각각 그 특질적인 면을 뚜렷하게 나타내게 되었다. 미국문학은 그 자체로 보나 문화와의 관계에서 보나 이제 학문적인 노력을 경주할 만한 하나의 어엿한 장르가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상의 변화는 科學的 思考方式에로의 변화에 의하여 초래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체로 거기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것은 19세기나 그 이전에 통용되던 資料分析과 그 分類體制가 이제는 주로 現代物理學과 生物學에 의해 개발된 機械論的 體制로 변화된 데에 기초하고 있다. 自然 자체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 이제 文學理論에도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그들 자신이 실제로 새로운 문화를 탐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美國文學研究者들은 思考와 方法에 있어서 오랫동안 文學研究에서 지배적이었던 歷史言語學者들보다 대체로 더 모험적이었다. 美國文學研究者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思

想的 指導者를 필요로 하였다. 포어스터(Morman Foerster), 멩켄(H. L. Mencken), 브룩스(Van Wyck Brooks), 패링튼(V. L. Parrington), 매티어슨(F.O. Matthiessen)과 같은 학자들은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에서의 지위를 지키기에는 너무나 독립적이고 독창적이었다. 한편 同協會의 一員으로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고 노력하던 퀴(Artthur H. Quinn), 휴벨(Jay B. Hubell), 윌리엄스(Stanley Williams), 머독크(Kenneth Murdock), 브래들리(Sculley Bradley), 러스크(Ralph L. Rusk) 같은 학자들은 협회와 그 기구를 발전시켜 많은 업적을 발표하였다. *Liter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와 *American Quarterly*가 발간되고 The American Studies Association이 창립된 것도 그와 거의 같은 20세기 중엽의 일이었다.

歷史家들도 이와 유사한 경로를 밟아 미국학연구에 기여하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새로운 학문의 副產物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문학연구자들보다 한 가지 더 利點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美國史가 특수한 연구분야로서 처음부터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뱅크로프트(Bancroft), 파크먼(Parkman), 프레스코트(Prescott), 모틀리(Motley)와 같이 解說調의 글을 쓴 史家들은 미국사를 歐洲勢의 팽창이라는 논리로 서술하면서도 서슴치 않고 미국사 자체에 대해서만 말하였다. 애덤스(Adams), 채닝(Channing), 힐드레드(Hildreth)와 같은 “客觀的”・組織的・軍國主義的인 史家들은 獨逸式 叙述方法을 거리낌없이 美國史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두가지 方法은 모두 중요한 것이었다. 그것은 터너(Fredrick Jackson Turner)의 理論에서 드러난다. 터너는 미국의 발전을 輸入品이라기 보다는 土着的인 成長으로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史料選擇에 있어서 經濟的決定論을 적용하였다. 실레진저의 移民研究와 비어드(C. A. Beard)의 憲法研究, 그리고 베커(Becker)의 獨立宣言文分析, 게다가 모리슨(Morison), 코매저(Commager), 네빈스(Nevins) 등의 연구는 環境因果說에 입각하여 史實을 재평가한 작업이었다. 이런 학자들에게는 文學이란 어떤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의 인간경험을 엮어놓은 기록에 불과하였다. 이들이 文學史家와 서로 접근한 것은 자신들의 연구분야와 방법, 그리고 자료이용의 범위를 넓히려는 욕구에서였다.

한편 이와 유사한 변혁이 다른 예술연구분야와 사회과학분야에서도 일

어나고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일반 역사가들은 경제학·정치학·사회학 분야에서 한창 대두하고 있던 신선하고 역동적인 사고방식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리고文學史家들은 회화·조각·건축·공예에 대하여 연구하는 歷史家들 사이에서 논의되던 環境因果說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많은 철학자들이 고전적 스타일에서 實用主義와 實驗主義로, 그리고 純粹哲學에서 知性史로 전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미국학이 하나의 연구분야로서 그러한 경향을 야기한 것은 아니었으나 1935년에 이르러 상술한 각 분야에서의 변화에 대하여 하나의 편리한 초점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제 강대국이 된 미국이 美國文化에 대한 연구를 자극시켰고 동시에 지나친 專門化를 탈피하여 學問分野間의 相互協同을 요구하는 강력한 움직임이 대두하였다. 하버드대학이 1936년에 대학원과정에 美國文明史를 개설하여 이런 움직임을 선도하였고 펜실베이니아, 예일, 미네소타 등 기타 대학이 이를 뒤따랐다.

처음에는 이러한 움직임은 대개 문학이나 역사라는 단일한 연구분야의 프로그램을 연장한 것이거나 혹은 겨우 연관되는 문학·역사간의 연합프로그램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을 견인해나갈 만한 종합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많은 학자들은 다시금 자신의 전공분야로 還流하고 있었으며, 실험적인 내용을 게재하려는 새로운 학술지는 많지 않았고 더구나 기존의 잡지들은 그런 움직임에 대하여 비협조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통뿐만 아니라 이론적 근거도 필요했던 것이다.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獨創性和 統一性を 확립하려는 과정은 미국학연구 자체로부터 유래했다기보다는 學界의 一般的 傾向에 연유한 것이라 생각된다. 現代科學이 물리적 현상이나 생물학적 혹은 경제적 상태만을 다루기보다는 인간의 本性和 文化를 다루려는 방향으로 기울자, 미국 문명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의 意味와 方法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組織的인 研究라는 목표에 이르는 아직도 요원하지만 美國學研究가 과거 십년간 큰 진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다.

美國이나 그외의 다른 現代文化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社會學과 文化人類學 그리고 心理學과 같은 이른바 行動科學에서 대두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또 다른 공헌을 한 것은 民俗學·意義

學·言語分析學에서 발전된 새로운 分析方法이었다. 그리하여 문제 자체에 內在된 난관이나 그것을 다루는 방법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미국학은 하나의 독립분야로서 성립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연구방법이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 사실 미국학이 복잡한 사건을 처리할 만한 보편화된 도구가 되지 못한 점은 그 약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強點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미국학은 아직 實驗的인 研究段階에 있다. 이 단계는 學問研究 자체라기 보다는 研究活動에 酵母役割을 할 수 있는 단계라 할 만하다. 미국학은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상이한 방법을 혼용하는 複合的인 學問이라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그 혼용은 機械的이 아니라 化學的인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 成分이 전체의 일부가 되기 위하여 그 자신의 본질을 잃고서 전혀 새로운 전체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945년 이후 美國文化에 대한 研究는 새로운 학문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흥미의 집중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이제 미국학에 있어서 統一性의 문제는 前面에 드러나게 되었다. 스미드와 같이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벌여 왔던 학자는 아마 그 문제의 긴급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에는 수많은 젊은 학자들이 미국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그들은 美國學教科課程의 구성에 있어서 統一性의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 이제 미국학은 학문으로서의 엄격한 규율을 따라야 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학의 道德的規約도 제정된 것이다. 이 규약은 스미드 말에 잘 드러나 있다. 그에게 있어서 '미국학'이란 美國文化에 대한 집중하는 知識慾을 의미할 뿐이었다. 이런 경우에 단일 문화를 主觀的인 個人의 經驗이 構成되는 方式이라고 정의한다면, 나머지 문제는 누가 그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문화 전체를 구성하는 성분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단일한 연구방법이 미국학연구에 바람직하다는 本稿에서의 假說은 연구자들의 願望의 종합에 불과하다기보다는 오히려 主題 자체에 있어서 有機的인 統一性을 발견해내려는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과거의 研究와 새로운 프로그램의 결과를 익히 알고 있는 학자들의 태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전 맥도웰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미국학이라는 학문은 연구자가 미국문명의 複合的이고 때로는 相衝的인 細部에 同化하고...그로부터 미국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내는 知的

過程이다. 그럼으로써 多樣性으로부터 어느정도 統一性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맥도웰이 말하는 이러한 과정과, 스미드가 마아크 트웨인을 그의 작품과 문화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美國學의 독특한 분야가 예술작품들과 그것을 낳은 文化 사이의 애매한 관계”라고 말한 점을 서로 비교해보라. 그 차이는 단순히 동료학자들 사이의 차이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과거의 연구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어온 방법이나 자료를 사용한 연구와 문화 자체의 중심적 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 사이의 차이이다.

현재로서는 적어도 스미드의 견해가 대체로 否定的이라고 하더라도, 기초적인 것이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의 문제들은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계획을 제공해주고 있다. 즉 “인간과 사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文學에 대한 分析과 동시에 社會變化에 대한 分析까지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美國學研究方法의 발전은 美學的인 價値로부터 社會的 要素를 분리하는 二元性에 기인한 궁지를 타개하려는 노력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社會學的接近方法을 대변하는 사람이 文學으로 옮겨 갔듯이 美學的 接近方法을 대변하는 사람이 文學으로 옮겨간 것과 같은 움직임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서로 만나서 공동작업을 하고 있으며 다같이 완강한 二元性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二元性이 해결될 수 있건 없건 간에 그것은 다음에 계속되는 논문들에 하나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처음 4편의 논문은 文化的 定義에 증거가 되는 역사적·사회적 자료를 탐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보여 준다. 미국인의 관념과 관습에 대한 틀을 분석하는 行動科學的方法들은 “미국인들은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하는 테니스의 귀절등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다. 만일 국민적 특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전체적인 產物로서 그 사회의 관념, 가공물, 제도 등에 의하여 표현되는 것이다. 어떤 학자는 孤立과 같은 요소들을 규정하고 그러한 사실과 그 價値에 대한 이해에 접근할지도 모른다. 린드버그의 대서양 횡단비행과 諸制度, 그리고 코문이나 勞動組織 같은 것은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 문화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이용될 수 있다. 그룹 이미지의 형성과정에서 획득된 자료의 타당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되며 純粹科學의 일반적인 영역으로부터 휴머니스트의 주관적인 영역에

이르는 데에 학자들은 오랜 기간을 소비했다.

이 책의 계속성은 오코너가 그의 논문에서 相異하나 밀접히 연관된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단절되었다. 오코너의 논문과 그 뒤에 계속된 대부분의 논문들은 문학과 그 외의 예술에 기초를 둔 데서 시작한 것이라기 보다는 역사와 사회과학에 기초를 둔 데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 部類 內에는 몇가지 下位分類가 있다. 문학 이외의 예술들은 문학과는 다른 문제들을 제기한다. 그리고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그것은 예술가들의 개인문제와는 다르다. 그러나 이 논문들은 그것을 낳은 문화와 예술적 표현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이것은 먼저 나온 논문들과는 表裏의 관계를 이룬다. 테이트와 같은 문학비평가가 어떤 사회문제의 원인을 캐기 시작하고 블레젠 같은 역사가가 대중적인 발라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미드의 二元性은 계속되고 있다. 이 두번째 부류의 논문에서는 美的價値가 주요한 이슈이다.

오코너가 예술상의 事實性과 생활의 現實 사이의 차이——이것은 모든 美的 理論에 잠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문제로서 제임스(Henry James)가 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는 문학도들에게 어떤 새로운 빛을 던져주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事實의 범위와 思想・象徴・價値의 범위를 구분하지 못하고서 문학을 단재 일종의 史實로서 이용하려고 하는 社會科學者들의 오류를 명쾌하게 지적하였다. 文學과 그외의 藝術은 神話와 象徴의 토대 위에서 특유의 現實世界를 창조한다. 이것은 예술가들 자신도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다. 그 세계는 가끔 推論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으며 어떤 科學的方法과 研究基準을 완강히 거부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문학도인 보우튼과 막스, 그리고 사회학자인 로즈 사이의 협동적인 노력이 理解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열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테이트(Tate)의 修辭的이고 辦證法的인 傳統과 막스의 특유한 전통은 어떤 內密한 文化라고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지만 그래도 그것들은 榼만의 바다에로의 行진만큼 현실적인 것이다. 노블이 베블렌 思想의 知的水準과 드라이저 思想의 直觀的・美的水準을 구분한 것은 進歩思想에 대한 兩人의 立場을 구분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레벤슨은 예술가 애덤스의 銳敏性을 美國科學文化의 變化를 조사하는 렌즈로 이용하고 있다. 쿼트(J. Kwiat)는 화가인 헨리와 작가인 에머슨과 韓

트만의 藝術的·知的 表現에 대하여 比較研究를 하였는데 이것은 이 두 분야의 예술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문화에 있어서 藝術과 思想과의 關係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大衆的인, 즉 民俗的인 表現을 다루고 있는 블레겐의 논문은 고도의 문화도 연구를 위해서는 하나의 文化的事實로 간주해야 한다는 태도——상징을 통해서 表現되는——의 세계를 혼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論證하고 있다. 포스터는 社會的事實과 美的價値의 면에서 미국문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宗教와 社會哲學으로부터 끄집어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모든 증거들로 보아서 미국학이 統一된 方法論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스미드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다. 事實과 사회 전체의 輿論의 수준으로부터 價値와 神話의 수준에로의 上向(혹은 下向) 移動은, 想像으로부터 價値와 神話를 통하여 美的表現을 그로부터 도출해내는 現實生活로 옮겨가는 문학비평가나 예술비평가의 이동에 대한 逆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그 두가지의 移動은 社會的 現實과 文化의 내밀한 꿈을 表現할 수 있는 이미지의 범위 내에 있는 어느 곳에서 만나서는 안되는 것인가? 이 책에 실려있는 어떤 논문도 社會와 藝術의 二元性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아직 어떤 해결책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스미드의 말이 적어도 현재로서는 타당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 책에서 설명된 다양한 方法과 그 綜合——잠정적이고 또 아마 불완전한 것이겠지만——은 미국학의 미래가 밝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희망은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人生이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二元的인 것이라는 휴머니스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을 것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神에 대해서건 自然에 대해서건간에 一元性을 열망하고 있지만 또 그만큼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다. 인간의 意識은 神的인 것과 物質的인 것에 모두 연관되어 있으므로 어느 하나에만 매달릴 수 없는 일이고 그럴 경우에는 또 人間的인 수도 없다. 미국학은 文學과 歷史學의 接觸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一體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학과 역사학의 접촉은 끝나게 될지도 모른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또다른 方法은 하나의 물체에 동시에 촛점을 맞추는 두개의 視覺을 허용함으로써 三次元的인 효과를 얻는 立體幻

燈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그 두종류의 現實性——想像의 현실성과 理性의 현실성——은 모두 事實的인 것이며 또 좀더 복잡한 형태로 인간의 文化에 긴요한 것이다. 두가지의 秩序——예술과 사회에 관한 것——와 事實의 수준으로부터 價値의 수준으로 옮겨가려는 意志 사이의 協力關係가 필요하다. 아마 미국학을 한가지 방법과 한종류의 題材에 제한하는 것은 敗北的이고 自害的인 일이 될 것이다.

社會科學과 人文學에 있어서의 現狀況의 아이러니는 현재의 추세가 그러한 協力과는 對峙된다는 점이다. 客觀的이고 “科學的”인 有用性を 획득하려는 소망은 미국학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분야에서도 또다시 學者들 사이를 떼어놓고 있다. 社會科學者는 社會的事實을 그 原因과 結果로부터 분리시켜서 그 事實이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文學批評家들은 예술작품을 그 의도와 효과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텍스트와는 이질적인 환경이라고 간주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혼란당하지 않고 그 작품이 의도하는 바가 읽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예술가는 또다시 사회로부터 고의적으로 疎外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도 고의적으로 그의 美的經驗을 빼앗고 있다. 사회과학적 정의에 의하면 價値 그 자체는 추상적인 階層構造 속에 존재할지 모르지만 어느 수준에서는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개념의 내용은 그것이 사회적이든 미학적이든 간에 表現方式이 되고 이 표현방식이 곧 개념의 내용이 된다. 즉 이 사이에는 辨證法的 關係가 무시되거나 은폐된다. 計量과 客觀性和 體系는 또다시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별개의 것으로 만들고 미국학은 이 양자 사이에서 와해할지도 모른다.

스미드는 이 문제를 철저히 고찰하였다. 그는 言語批評(新批評)에서의 內的分析과 사회과학에서의 計量은 별도로서는 성취될 수 있으나 兩者를 동시에 성취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윌리엄 워사트와 먼로 비어즐리는 言語批評에 대한 설명 중에, “의도적 오류는 詩와 詩의 起源에 대한 혼동이며 감정적 오류는 詩와 詩의 効果에 대한 혼동이다. 의도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간에 어느 한편의 오류의 결과는 특히 신중한 판단의 대상으로서의 詩 그 자체가 사라져가는 경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버나드 베렐슨은 사회과학에 있어서 內容分析은 명백한 傳達內容에 대한 客觀的·組織的·量的敘述의 연구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과정은 과학에서 요구되는 정밀성과 정확성에 접근키 위해 객

관적 경험의 요소들을 독단적으로 분리시키거나 혹은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어떤 假說을 증명하려는 것이라고 간주되지 않으면 그러한 노력은 실패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두가지의 궁지는 물론 한편으로는 客觀的・科學的인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美學的純粹性을 얻기 위한 노력——한마디로 말하면 경험을 초월한 타당성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학자들이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는 경향에 있는 것이다. 分析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實體를 일시적으로 분리시키는 방법만이 立證可能한 眞理에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 만일 여러가지 개발된 방법들이 數量을 표현하는 것으로만 인정되고 그 결과가 과학적인 타당성이 있다기보다는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면, 내용분석적 방법은 진실로 客觀的 非計量的 要素들, 즉 價値, 樣相, 그리고 理念과 같은 것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근년의 心理分析技術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思考力과 感情은 인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위하여 理性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개인과 사회에는 이해와 가치의 論理的方法보다 순수하게 質的인 것을 요구하는 넓은 영역이 있다. 버나드 베렐슨은, 특히 함축적인 의미에 대한 量的分析 및 質的分析의 有用性을 인정하지만 목록과 가정을 날카롭게 하거나 감동적이고 모호한 공식을 피할 책임은 가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또한 社會的隱喻, 進化, 意識의 영역 내의 純粹理論的인 탐구를 위해 이와 같은 分析의 적극적인 사용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그는 말티노프스키의 想像的 科學的 精神에 대한 연구와 트로이브리안드 섬사람들의 원시적인 습관, 그리고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대문명을 기초로 한 대중적인 요소를 통하여 美國文化의 근원을 입증하려는 콘스탄스・루어크의 시도, 그리고 內的志向型으로부터 他者志向型으로의 重點變化를 목격한 데이비드 리즈만과 그의 동료들의 一般化에서 國民性의 폭넓은 示現등을 이와같은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純粹理論的인 研究들은 모두 純粹主義者들의 의심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정이 사실 및 量的 타당성에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純粹主義者들이 바로 이 특성이 인간의 상상력의 영역 내에서 충돌하리라고 생각하였고, 이로 인하여 문학도들이 회의를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가능케 해주었다.

반면에 만약 事實의 분리가 목적이 아니라 分析過程의 임시적 조건으

로만 인정된다면, 예술가의 全生産品과 그의 작품을 기초로 한 여러 창조적 과정을 그리고 분리시킨 예술작품은 물론, 그의 자서전적 사회적 여건에 대한 그들의 통찰력의 적용을 막을 수 있는 新批評派의 질차는 없다. 물론 新批評派와 같은 순수주의자들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징조가 점증하고 있고, 단순한 하나의 詩·소설·그림·연극 혹은 작곡에서 찾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경험의 문맥을 나타낸 테이트가 南部文學을 이야기한 방식으로 그들의 관찰결과를 말하려고 하는 욕망의 표시가 점가하고 있다. 순수주의자들의 개인적인 분석은 물론 이른바 批判歷史라고 불리우는 것 중 많이 발견된 그들의 태도는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인 反歷史主義는 표현 방식에서는 물론 표현방식을 통한 분석방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 대해서 양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괴테, 레싱, 콜러리지, 그리고 아놀드에 대해서처럼,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창조과정에 존재하는 想像力과 神話와 隱喩에 관한 이론적 연구의 문이 또다시 열리게 된다면 文學批評家는 좀더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社會科學者들과 대화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찾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이고 조리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주장이야말로 오늘날의 학문연구에 있어서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자연과학자들처럼 사회과학자들도 또한 정확한 예언을 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직관적이고 非數量的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은 점차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경향이 계속된다면 미국학은 사회학의 한 분야가 되어 그 분야의 純粹主義者들과 함께 아주 한정된 연구분야로 규정될지도 모른다. 그 결과 뉴욕 批評界가 해체되어 순수한 文學分析家들이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文學史나 文化史 등을 다루는 역사가들——그들이 언제나 되풀이되는 노력과 실패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학문을 과학으로 격하시키기 위한 純粹理論을 정립하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이 항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역사를 社會에 대한 分析과 記述로만 격하시키는 일을 그만두고 자신들의 기능에 대한 方法論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근에 발족한 어느 위원회는 “社會科學的 接近方法의 이용은 文化의 중요한 動態를 보여주는 사건의 여러 단면에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시사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아울러 이 위원회는 “미국의 역사가 170년이 아니라 200년이라고 말할 때는 시간과 공간의 존재

에 의한 종합적 고찰이 요구되는 것이며 그것은 사회학자들의 도움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하는 역사학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예언하고 있다.

미국학 연구자들은 美國文明의 發達과 現狀 등 특정한 분야의 자료와 하나의 큰 역사적 사건에 몰두하고 있기는 하지만, 方法論에 대한 探究와 實驗에 있어서 다른 학자들보다 더 자유스럽다. 分析形態의 技術이나 社會科學者 혹은 文學批評家의 技術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그러나 어떤 분야의 純粹主義者들에 의하여 제기되는 목적에 대한 제한을 거부함으로써, 미국학 연구자는 單一한 時間과 場所에 있어서의 인간경험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깊이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다.

미국학 연구자는 또 類推에 의하여 다른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의 인간경험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또 그것을 보편화함으로써 文化 자체의 성격울 보다 잘 이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가 역사가에 의하여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만 사회과학적 방법이 公式化되고 한정되는 데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혹은 역사를 부정하고 公式的인 文學・藝術批評으로 나아가서도 안된다. 그러한 임무는 중재자의 역할인 것이다. 그러나 그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서 지난 수십년간의 발전 이상의 것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과업은 美國文化에 대한 理解이며 따라서 그것 자체를 완수하는 데에는 단 한 가지의 적절한 方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심적인 目標가 반드시 方法論의 制限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References: on American Studies, Past, Present and Future

1. Tremaine McDowell, *American Studi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48).
2. Committee on the College Study of American Literature and Culture: William G. Crane, Chairman, *American Literature in the College Curriculum* (Chicago: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1948).
3. Constance Rourke, *The Roots of American Culture*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 1942).
4. David Riesman and Others, *The Lonely Crowd*(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53).

5. Thomas C. Cochran and Others, *The Social Sciences in Historical Study; A Report of the Committee on Historiography* (New York: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Bulletin, No. 64, 1954).
6. Joseph J. Kwiat and Mary C. Turpie 'eds.' *Studies in American Culture: Dominant Ideas and Image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1.) (This book includes a thesis on the title by Robert E. Spiller).